



올 1-4월 일-중항로 컨테이너물동량 크게 증가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31만TEU로 21% 늘어

일-중간 정기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

일-중해운동맹사무국(SCAGA)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, 올 1-4월 일-중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은 99만8,900TEU로 전년동기에 비해 12.9% 증가했다.

이 가운데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 화물은 30만7,114TEU로 전년동기대비 21.0% 증가했으며, 수입은 69만1,786TEU로 9.6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한편, 금년 4월 한달간 동 항로의 물동량은 27만2,005TEU로 전년동월대비 7.8% 증가했다. 일-중간 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 중국 항만별 취급량을 보면, 상해가 전년동월대비 13.8% 증가한

13만1,547TEU를 처리했으며 청도는 3.2% 증가한 3만2,441TEU를 처리했다.

일-중항로에서 일본선박과 중국선박의 수송점유율을 보면, 일본선박의 경우 수출 9.0%, 수입 11.5% 등으로 10.8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[2006년 4월 일중항로 수송실적] (단위 : TEU)

구 분	수출(일본 → 중국)		수입(중국 → 일본)		총 계	
상 해	38,776	14.4	92,771	13.5	131,547	13.8
천 진	13,618	14.9	15,300	▲8.4	28,918	1.3
청 도	6,736	37.3	25,705	▲3.1	32,441	3.2
대 련	7,533	6.9	19,965	▲9.4	27,498	▲5.5
기 타	11,909	4.0	39,692	9.6	51,601	8.2
총 계	78,572	13.6	193,433	5.6	272,005	7.8
1-4월 총계	307,114	21.0	691,786	9.6	998,900	12.9

금년 1-4월 아시아-유럽항 컨화물 13% 증가

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중해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.

구주운임동맹(FEFC)의 집계에 따르면, 동맹선사들이 올 1-4월 기간중 아시아지역에서 북유럽·지중해로 수출된 컨테이너화물 수송량은 205만TEU로 전년동기대비 13% 증가했다.

이 가운데 북유럽으로 나간 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1% 증가한 148만TEU, 지중해항이 20% 증가한 57만TEU를 기록했다.

더구나, 4월 한달간 지중해로 나간 물량은 전년동월대비 30% 증가했으며, 이 항로 취항선박의 소석률도 90% 이상의 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.

올 1-4월 기간중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나간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국가별 증감현황을 보면, 중국이 전년동기대비 19% 증가한 81만TEU로 전체물동량의 55%를 차지했으며, 홍콩은 1% 감소한 12만TEU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홍콩을 합한 점유율은 63%에 달하고 있다.

이와함께 베트남은 14% 증가한 8만5,000TEU, 싱가포르는 12% 증가한 1만7,000TEU를 기록했다.

그리고 지중해로 나간 물량의 경우도 중국이 26% 증가한 것으로 비롯하여 일본, 대만, 태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이 일제히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